

## 火災變化現象에 對應



理事長 曹興萬

高度産業社會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都市의 集中化와 多岐化는 災害發生이라는 副產物을 必然的으로 加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社會의 모든 變化는 아무 豫徵없이 偶發的으로 일어나는 것은 決코 아닙니다.

火災의 發生도 따지고 보면 반드시 그 發生을 暗示하는 徵候 即 初期的 變化의 움직임이 現實的으로 싹트고 있는 것이며, 그 豫防과 對策을 소홀히 하고 있는 동안에 견잡을 수 없는 큰 災難을 當하고 마는 법입니다.

무릇 人間은 나면서 부터 이웃과 더불어 社會共同體를 이룩하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周邊에 存在하는 災害要因과 變化現象을 直視하고 이에 對應하는 對策을 科學的으로 樹立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發展하는 祖國과 더불어 自信에 넘치는 時期에 힘차게 躍動하는 社會에 뛰어들어 서로 協力하며 共同의 利益을 위하여 共通된 目標을 찾아서 서로 協力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979年 5月末 現在 火災로 인한 財產被害額은 勿驚 26億 8千 8百餘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原因別 火災發生 趨勢를 分析해보면 電氣를 비롯한 現代化에 따른 火災要因이 으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自然燃料과 自然住居 環境속에서의 生活의 智慧가 갑자기 닥쳐온 生活樣式의 變化로 生活智慧의 定着에 充分한 餘裕가 없어 스스로 指向할 限界를 迂廻하는 生態를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反省하지 않는 삶은 價値가 없다고 합니다.

災難의 變化現象에 對應하는 科學的 對備를 위하여 이제 成年에 이른 本誌는 工學에서 産業 그리하여 科學이라 불리우는 文明에 이르기 까지의 伴侶者로서의 그 所任을 다할 것을 疑心치 않습니다.